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4호 [주제 제25367호] 주제 105 (2016)년 8월 11일 (목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신 2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옹대한 강령을 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력전개나가고 있는 천만군민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신 20돐을 맞이하고 있다.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전체 군대와 인민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매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조국을 떠받드는 뿌리가 되시어 선군시대 국토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었으며 나라의 무장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미전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승고한 애국헌신의 학성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신 2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 사이며 힘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또한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조국산

천을 사회주의선정으로 꾸려자!』, 『전당,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羸있이 떨려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장은 열렬한 조국애로 심장을 불태

우시며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의 불길을 지펴

주시고 조국강산을 인민의 무疆도원, 사회주

의선강으로 꾸려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어버이장군님

의 숭고한 구상과 님월을 빛나는 혁신플

꽃의 위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으로 끌어먼지고 있

었다.

보고회에는 박봉주동지, 박영식동지, 오

수용동지, 최부일동지, 도무칠동지, 김수길

동지와 무역,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안의 기관, 기

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 『국토관리총동

원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치펴울려 위대한

장군님의 국토건설사상과 혁도업적을 끌었

이 빛내여나가자』를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조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

의 땅으로 꾸려시기 위하여 바치신 고귀

한 혁명생애와 업적은 김정일에 국주의로 조

국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영원불멸하리라는

확신을 굳게 간직하였다.

보고회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국토건설사상과 혁도업적을 전개해 옹호하고 문없이 및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한 명도따라 국토관리총

원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치펴울려

나나, 내 조국을 천하제일 강신으로 꾸려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

주악으로 보고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칼랄라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라 무세베니각하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당신이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따뜻한 친문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 105(2016)년 7월 22일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평양시 상업관리국 산하단위로 토동자로써 철은 오랜

기간 단수대언덕에 높이 도선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충청의 흰마을을 다 바치면서 통상주변을 더 잘 꾸리는에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기증하였다.

통대원구역 통신 1동 9101번 김상보, 평양악기 공장, 평양 평화회관 4, 261회회원회 활동소 미술원 인영식도 수십만세월을 하루와 같이 manus

대연대에 올려 절세위인들의 통상주변관리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랑은 그려움을 안고 혁신거리상점 부원 김

경숙은 만수대혁명사적지를 더 홀륭히 꾸려는데 적극 협력하면서 어머까지 자제와 기공구를 40여 차례나 보내주었다.

평양시주무관리국 부원 리경희도 비카 오나 는

이 오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을 찾아 꽂았한

방심을 바치었으며 수많은 관리도구들을 기증하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수령 영생 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의의 세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조선적실자종합병원 원사 전일수는 천출위인들의 통상을 더 밟고 정중하게 모시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경업성체육단 선수 퍼북도 백두산청년강국에서 살며 뚜렷하는 청년전위답게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를 끌없이 빛내이는 사업에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각

정부에 밟아온 근로자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시며 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한몸 다 바쳐 갈 열의에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조국해방 71돐과 선군절에 즈음하여 벌가리아단체 불례전특간호 발행

조국해방 71돐과 선군절에 즈음하여
위서 윤류경수제 105평크사단에

선군혁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김정일각하께서는 미제를 우두머리

를 하는 제국주의현 핵세력의 침략에
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의 심지지통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수호하시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지

71돐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10대의
여러신 나라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

시에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대로 이끄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면밀한

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불례전은 『선군질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자주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김정일각하께서는 만민의 탑아없는

홀로를 끌고계신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외

김정일각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는 선군혁명 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에 의해 승리적으로 결

정하고 있다.

8월 15일에 즈음하여 국제사회는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김일성주석에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

하고 있다.

주석께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

점한 일제를 타승하시고 나라의 해

방을 안아오시였다.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나는 불멸의 업적

민주꼴교신문특집

으로 내세운 『E. D.』의 만성은 조

민족에의 유행에 쳐해있다.

조선인족을 해방 시켜 주신 분이

바로 김일성주석이었다.

김일성주석에서는 1930년 역사적

평화하지 않으면 다시 둘이오지 않으

리라는 비장한 명세를 다지시고 조

국방을 떠나신 주석께서는 1926년

10월에 새 세대 혁명가들로 라도제

국주의통행을 결성하였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나라의 해

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을 당연파

하시였다.

조선인민은 15성상에 걸

치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

로 이끄신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대양, 해방의

구세주로 높이 우러러 모시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조선인

민의 민족해방위업이 성취되었다.

조선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유행에

벗어나자기 유행의 주인으로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

할수 있게 되었다.

해방의 윤리인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새기를 이어가며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

되어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수령님은 자주의 가치높이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민족의 수난사를 끝장내고 인민의 나라를 세운 혁신위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걸친 빛나는 법이다.

불세출의 영웅 이 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대한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첫 무장대오를 조직하시고 전면내전을 선포하시었을 때 세계는 경이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일본제국주의는 청일, 일로 두 전쟁에서 자기 평생의 몇십 배나 되는 패배 한 땅을 가지고 있는 대국들과 싸워 복서전 진홍군사강국이었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한다는 것은 편제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군사력과 편제적인 『황도정신』을 타승하고 『당신은 후한 신종일본이 근 70년 동안 이룩해온 모든 인적, 물적, 재정적력량과의 소모전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세계전쟁에서는 그려온 바가 없었다. 외부적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에게 도침하였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향일무장투쟁을 전개하실 때 승리의 결정적단보로 여기신 것은 바로 우리 인민이었다.

인민이 우리의 힘이고 지혜이며 생생이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지하며 인민을 발동시켜 써워야 한다.

세상에 그 뿌리를 찾아볼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이 위대한 인민관이 항일대전의 혁명적성질과 그 수행방식, 정령의 승리를 결정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전개한 반일의식과 무공무원한 잡재력을 굳게 믿으시였기 때문에 항일대전의 전기간 자주를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기 때문에 물파니 조국해방의 혁사직업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저읍으로 자주의 기치를 추켜드시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창시자와 주체혁명의 원리로, 혁명방식으로 정립하고 구현하신 것은 인류사상사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사에서 빼기할 혁사직사변이었다.』

성스러운 항일혁사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전진하면 천화를 얻을수 있지만 자기 힘을 믿지 못하면 혁명도 할수 없고 살아갈수도 없다는 진리를 자기의 갈피에 전하게 새겨넣었다.

제 멀리 카를의 수수한 친명하고

교실이 우리의 추억 속에 우렷이 떠오른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청 및 반제 철거행 저도간부회의를 여시고 혁사적인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통하여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주체적인 혁명의 강을 밝혀 주시였다.

10대의 짚으신 청년장군의 우렁한 용성이 지금도 우리의 퀴장을 들리오는것은 물론이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한다는 것은 편제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군사력과 편제적인 『황도정신』을 타승하고 『당신은 후한 신종일본이 근 70년 동안 이룩해온 모든 인적, 물적, 재정적력량과의 소모전에서 승리자

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에, 탁월한 고전에 없는 정식화이고 날들에 헤어지는 규정으로 그것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규정이면 혁명가들은 서슴없이 선택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수령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였다. 그 결심은 그대로 빛나는 역사가 되고 헌법은 그대로 빛나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우리 혁명이 존재하고 우리 인민의 운명이 구원될수 있었으며 항일혁명의 승리에 대해서 생각할수 있었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그 누구도 혁명할수 없는 철의 퀴와 주전으로 조선혁명의 자주적전권리를 짓밟는 온갖 베아주의적 주장을 파괴해 밭이 되어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방향은 그대로 하여 새롭게 태어난 반일민족통일방향으로 하여 새롭게 태어난 반일민족통일방향으로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수 있게 되었다.

향일무장투쟁에서 조선의 혁명가들은 남의 나라 땅에서 경찰관들이를 하지 않으면 알았으며 우리 혁명은 국심한 민족대우주의와 종파사대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엄혹한 환경속에서 자주적권리를 투철하게 침해당하였다.

그들은 이국땅에서 혁명을 하고 있는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로 드는 것은 국제당의 15대 당제원칙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어끼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 한다는 확고한 힘을 풀어 천명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전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전선을 푸른하는 힘은 인민대중에 있다.</

백두청춘들의 심장의 웨침-충정으로 밟들리 어머니 우리 당을!

혜산-삼지연 철길 건설에 참가한 북부 철길 청년 돌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시였다.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간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청년들이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때입니다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은 아름답다. 하다면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풍광의 대답을 혜산-삼지연 철길 건설에 참가한 북부 철길 청년 돌격대원들의 충정의 전투기록장에서 찾게 된다.

『얼음신발』

북부 철길 청년 돌격대의 전투기록장의 갈피에는 이런 글이 있다.

《오늘 황해 남도현대에서는 14 0m 고성도구간에서 로반을 예는 작업을 하였다.

평화 4 0°C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청년 돌격대원들은 모두가 둘째치고 물에 차운 청년들의 심장은 얼굴수 없는 그들중 한 사람의 실상과 같이 주어졌다.

백두의 깔마름속에서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주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 돌격대원들, 그들이 고

백두산 기슭에 새겨지는 값높은 청춘의 자욱

난도 웃으며 끝나가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현대 장 죄영일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백두산 영웅 철길 전선 건설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보시고 짚은 영광의 기념사진을 언제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사는 우리 돌격대원입니다.》

모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우리들은 모두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사는 불라는 그리움과 충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면 지구도 통제로 들어올릴 것이라는 황해 남도현대의 청년 돌격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금은 볼수 없는 『얼음신발』을 다시금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 어떤 후한 불보다 끝까지 우리 청년들의 심장은 얼굴수 없는 것이다.

제일 고운 모습

전투의 본초초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 혁신의 소식 속에 청년 돌격대원들의 위용도 새겨지고 있다.

파란 청년들은 대원에게 이야기를 들으며 저금은 볼수 없는 『얼음신발』을 다시금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 어떤 후한 불보다 끝까지 우리 청년들의 심장은 얼굴수 없는 것이다.

현대 장 죄영일동무의 손이 금지문이 되었다. 강추위 속에서 뛰어나며 일하던 우리 땅마리들이 되어버린 신발의 이야기에 열을 가시며 대둔쳤던 것이다.

백두의 깔마름속에서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주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 돌격대원들, 그들이 고

기 위해 힘과 정대로 언성을 끼는 일을 하였다. 이쁜 아침부터 진행된 작업은 시간이 흐르자 소대별 경쟁으로 이어졌다.

일에서나 생활에서나 언제나 정직적인 돌격대원들 모두의 마침표로 카복터 봉풀짜리를 짹웠다. 남들에게 위험세라 카마장을 드시면서 하는 돌격대원들 속에서 25살 난 청년 돌격대원 김일심동무도 있었다.

때문에 이곳 가령현 청년구에서 세워하는 혁신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위하여 남들에게 대원에게 헌신의 모습을 두고 2대대 대원 김항숙동무가 지은 자작시도 있다.

말죽하던 네 얼굴 해辨别에 왔다고 청년아 그 순 갑주지 말아 그 누가 맞하라

하루에도 몇천번 카마장을 부드럽게 손에 잡아 빙그려온 청년아 그 순 갑주지 말아 어느 누가 맞하라

힘겨울을 웃음으로 이겨내며 청년의 구슬땀 이끼없이 바쳐가는 청년아 네 모습 제일 아름다워라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원들과 더불어 우리 눈앞에

한국 철길 건설에 참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시는 절세의 위인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을 끊어내고 세계를 평화로 만들려는 애정을 풀어놓았으며 그 흥심은 오늘도 멎지 않았다. 미제는 당시적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빙대한 핵무력을 절길시키고 전쟁 도발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무임되는 무력과 칠갑적 성격에 있어서 국제 위험 천안한 미국과 피폐호전파들의 핵동군사 연습이 남조선에서 훈련되어지고 있다. 웅군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대체로 파괴된 공격수단들의 흥무임 하에 어떤 계획도 없이 감행되는 이런 모험적인 핵전쟁행동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진례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미제의 칠갑기도가 과연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세계의 그 어느 지역에 서도 그 누구도 멈춰세울 수 없었던 미제의 핵전쟁미치는 유혹 우리 공화국의 문 떠난은 던져서 못하였다. 미제의 군사적 강권과 전횡을 정의의 해역계역으로 단호히 짓누르는 선군조선의 강위력한 힘을 평화를 수호하였다.

조국과 민족, 인류와 행성의 천만년미래에 대한 고증한 책임감과 비탄한 통합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여 주시드셨습니다. 불러온 지구가 아닌 아름답고 푸른 행성을 위해 우리 공화국은 평화옹호의 성세가 되었습니다.

당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미쳤다면 그 창후한 계단은 이 땅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전체 나아가서 세계를 죽음의 사막지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핵폭격으로 재해되고 분명없이 도발을 걸며 미쳐날뛰던 홍악한 숭나루부들은 데번 선군조선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기에 선군의 위력으로 미제 국주의 의 승리를 조이 시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고자 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온 겨레와 인류의 열화같은 흥모와 신뢰의 정은이 이 행성에 세차게 굽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아시아아태평양지역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핵억제력을 중으로 하는 자작군사력을 마련하고 미국의 전쟁 도발핵동을 걸어마다 짓부수어롭으로 씨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밀집하게 하여 수호하였습니다.」

역사에는 군사적지략과 전쟁에서의

공로로 하여 이름을 날린 위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처럼 그토록 세인의 천한마음과 흡보심을 물려일으킨 최씨의 천출명장은 없었다.

돌이켜보면 세계의『기강』을 자랑하던 미제에 끌어들여온 수치와 폐해를 안겨준 조미대결의 자랑찬 승리의 역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며 빛나며 아름답게 놓여온 역사였다. 그 배수는 역사가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무비의 담력과 자신만만한 배짱을 그대에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끌어들여온 수치와 폐해를 안겨준 조미대결의 자랑찬 승리의 역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며 빛나며 아름답게 놓여온 역사였다. 그 배수는 역사가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무비의 담력과 자신만만한 배짱을 그대에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끌어들여온 수치와 폐해를 안겨준 조미대결의 자랑찬 승리의 역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며 빛나며 아름답게 놓여온 역사였다. 그 배수는 역사가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무비의 담력과 자신만만한 배짱을 그대에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무비의 담력과 배짱, 비범한 지략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수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초강경조치를 취하자 적진영이 말각에 위치했다. 미제 우두머리들은 『북이』에 상처 못 끊은 공격방법으로 미국을 놀라게 할 것으로 보인다. 『고』 하면서 불안한 심리를 감소시켰다. 그러고 공개적으로 전쟁하기로 되어 있던 미 2사단의 사격훈련을 비공개로 조용히 치르었으며 이전 파는 달리 남조선에 대한 전략기지들의 반입을 차제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원수들은 미국이 겁을 먹고 주총거리를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침략자들이 간히 실성한 우리 조국

강도에 선불질을 한다면 무지비하게 격멸로향하고 만미대결의 승리의 전통을 및 나에게 이어가고 인민 군인들을 고루격려해주시는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불세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평장의 손길 아래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파도세간 역사의 속성을 주도해나가는 풍물의 대으로,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함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밀집하게 하여 수호하였습니다.

역사에는 군사적지략과 전쟁에서의

공로로 하여 이름을 날린 위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처럼 그토록 세인의 천한마음과 흡보심을 물려일으킨 최씨의 천출명장은 없었다.

돌이켜보면 세계의『기강』을 자랑하던 미제에 끌어들여온 수치와 폐해를 안겨준 조미대결의 자랑찬 승리의 역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며 빛나며 아름답게 놓여온 역사였다. 그 배수는 역사가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무비의 담력과 자신만만한 배짱을 그대에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끌어들여온 수치와 폐해를 안겨준 조미대결의 자랑찬 승리의 역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며 빛나며 아름답게 놓여온 역사였다. 그 배수는 역사가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무비의 담력과 자신만만한 배짱을 그대에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끌어들여온 수치와 폐해를 안겨준 조미대결의 자랑찬 승리의 역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며 빛나며 아름답게 놓여온 역사였다. 그 배수는 역사가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무비의 담력과 자신만만한 배짱을 그대에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무비의 담력과 배짱, 비범한 지략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수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초강경조치를 취하자 적진영이 말각에 위치했다. 미제 우두머리들은 『북이』에 상처 못 끊은 공격방법으로 미국을 놀라게 할 것으로 보인다. 『고』 하면서 불안한 심리를 감소시켰다. 그러고 공개적으로 전쟁하기로 되어 있던 미 2사단의 사격훈련을 비공개로 조용히 치르었으며 이전 파는 달리 남조선에 대한 전략기지들의 반입을 차제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원수들은 미국이 겁을 먹고 주총거리를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침략자들이 간히 실성한 우리 조국

반가리걸전을 앞둔 그 시작 우리 병사들이 부르는 『김정은원수님 목숨으로 사수하라』와 『김정은장군한가의 우렁한 노래소리』는 적들에게 전율과 풍물에 흔들어버리고 풍포에 질린 적들은 마침내 무릎을 끌고야 말았다.

세상사람들을 경관시킨 지난해 8월의 무전부렬의 대승리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영웅신화로 선군혁명신록에 두렷이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암말한 군사적위협소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강장에는 초강장으로 맞았던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탐대한 배경에 이처럼 미제는 뛰어가기 꺾이었고 후종세력을 몰아쳤다. 그 런데의 기상상에 적들은 전율하고 있다.

당시 미제는 남조선피폐들을 내세워

고 무슨 『지폐폭탄사건』과 『북로판란사

사건』이라는 것과 조작, 연출하고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갔다. 사태는 원인

도를 그 어떤 우랄적인 사건으로도

전령이 될 턱이었다.

『선헌명령』으로 가장 치열한 만미 대결전에서 편전편승하시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굳힌 히 수호해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굴의 업적은 세계를 한반도를 금지 못하고 있다. 남들이 푸려워하는 제국주의 우두머리와 당당히 맞서 조선민족의 용광과 기상을 온 누리에 펼쳐가는 우리 공화국의 천임대한 배짱은 전후무수한 것이다. 뛰두명장의 위대한 선군영도가 바로 이런 빛나는 경질을 남기고 있다.

백두산호랑이의 단호한 기상으로 세계를 끌어보이며 오직 끝바로만 전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로 우리의 선군운영은 훨씬더이며 조선반도의 평화는 앞으로도 굳건히 수호될 것이다.

본사기자 허영민

례로주법들의 비렬한 모략소동

그 무슨 『북의 레로가능성』을 운운하며 북남 대결기운을 고취하는 피폐계당의 당동이 날로 우집해지고 있다. 얼마전에도 피폐들은 북이 해 외에 『레로, 랑치』를 위한 인원들을 파견하였다. 더 무너지는 나발을 불어대면서 『북이 우리 국민들을 해 레로, 랑치』할수 있다고 고아했다. 저 『북의 뚜보부대에 의한 팔자 가능성』까지 떠벌여 그에 그에 『데비』해야 한다고 북탁소동을 퍼우고 있다.

까마귀는 언제 봄이 총장파먹은 까우소리만 냐마다니 등쪽에 이풀이 난자들이 푸려대는 소리만 전부 이렇게 정신병자와 광포대 같은 수작뿐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병자들이 라고 해도 모략과 날조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놓아놓았던 풍기를 하려고 데려온 것은 우리가 박근혜계당에게 대고 해야 할 소리이다.

우리 주민들을 떠나 주주에 집단유인락지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간 규약한 테로파, 광포무리가 파연 누구인가.

최근 피폐정보원장에게 해외에서 간행한 우미 네성종업원들에 대한 집단유인락지만행은 남조선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와 경쟁을 자아냈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우리 네성종업원들을 유인락지하고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피폐당국의 민인봉직행을 족로단죄하는 각계의 무정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레로』의 감포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이 도적이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남조로 고조되는 박근혜계당의 바탕이다.

피폐들이 우리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데로, 랑치』를 요란하게 떠벌어대며 풍족을 악탈하게 걸고들고 있겠는데는 스쳐지 날수 없는 음흉한 목적이 짐짓이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남조로 고조되는 박근혜계당의 바탕이다. 랑치를 끌어들이기도 풍족을 악탈하게 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의 감포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시대의 흐름과 거예의 지향에 역행하여 동족대결에 미쳐남뛰는 민족무리는 징벌을 면치 않는다. 피폐당은 박근혜계당의 비렬한 술책은 내외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만을 불러일으킨다.

시대의 흐름과 거예의 지향에 역행하여 동족대결에 미쳐남뛰는 민족무리는 징벌을 면치 않는다. 시대의 흐름과 거예의 지향에 역행하여 동족대결에 미쳐남뛰는 민족무리는 징벌을 면치 않는다. 시대의 흐름과 거예의 지향에 역행하여 동족대결에 미쳐남뛰는 민족무리는 징벌을 면치 않는다.

그러나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대로악당들이 저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우리에게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은 『데로, 랑치』를 퍼우려고 말악하는 것과도 같다.

박근혜야 말로 현대판 『을사오적』이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강조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성)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4일 박근혜당의 시대착오적인 『싸드』에 대처하는 단호한 대처를 발표하였다.

당화는 전체 재일조